

바이러스에 노출 된다고 다 감염되나

내 몸의 마스크 면역력이 좌우... 홍삼성분 Rg3가 도움

〈진세노사이드〉

면역력 중요성에 '홍삼' 주목
타 인삼보다 사포닌 다량 함유
신체 유효한 성분 함량 높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이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 눈이나 코, 입의 점막이나 호흡기에 침투하면 전염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변이되면서 중증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리보핵산(RNA)계열의 바이러스로 다양한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백신개발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

은 곳의 방문과 접촉을 자제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개인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위생과 함께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고, 항바이러스 및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원료는 모두 24종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인삼, 알로에겔 클로렐라, 상항버섯추출물 같은 제품들이 있고, 다래추출물이나 동충하초추출물 등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은 원료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산균이나 비타민

등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기능을 인정 받은 원료는 아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제품은 홍삼이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2018년 국내 식품 산업 현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서 홍삼은 6765억 원 규모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홍삼은 인삼 재배 적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6년근 수삼을 엄선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증기로 찌 건조시킨 인삼이다. 홍삼 제조 공정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새로운 생리활성 성분들이 생성된다. 이들 성분들은 수삼이나 백삼에는 없는 홍삼 특유의 성분이다.

홍삼은 증기로 찌는 과정에서 생삼의 독소들이 제거되고 신체에 유익한 새로운 생리활성 성분들이 생성된다. 또 수삼, 백삼 등 다른 인삼보다 가장 많은 종류의 사포닌이 들어 있으며, 신체에 유

효한 성분의 함량이 높아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영 장안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홍삼은 증기로 찌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생성, 증가한다"며 "특히 홍삼이 가진 대표영양소는 진세노사이드인데 그 중 면역력과 관련된 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g3, Rh2가 있고 산성다당체 성분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면역력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식약처에서 면역력 기능을 인정받았는지, 제대로 생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설때 동남아 다녀오셨나요?... 당분간 입원 못합니다”

환자 해외여행력 중국 외로 확대
동네 병원, 사전정보 확인 어려워
미예약 감기증상 환자와 실랑이도

#.이번 주 무릎관절 수술을 앞뒀던 54세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일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열흘 전 태국에서 입국한 기록이 있으니 귀국 14일 이후로 수술을 미루겠다는 통보였다. 병원에선 14일이 지났어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입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병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중국 외 일본, 동남아시아 방문자들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위험 국가 범위가 사실상 넓어진 탓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환자들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지난 5일 부

터 중국 외 지역으로 확대했다.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위험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들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환자들을 걸러내고 있다.

◆동남아 방문자 '출입 금지'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상급종합 병원들은 발빠르게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2주 이내 중국에 이어 태국, 싱가포르 방문자들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중국 외 동남아시아를 거친 후 입국한 사람들은 귀국 후 2주동안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세브란스병원도 중국, 홍콩, 대만 등과 일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인 환자들을 걸러내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역시 중국과 동남아시아 입국자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원내 안심진료소를 먼저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을 중국 외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병원들도 대응방침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히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들이 알아서 위험 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속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들이 이렇게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6일 부터 중국 외 환자들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 영향이 컸다. 정부가 중국 외에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 대한 '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기관들은 수진자자격 조회 시스템,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와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환자들의 중국은 물론 제3국의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환자들은 예약 단계에서부터 걸러진다. 해당 국가 방문자들이 기존에 예약해놓은 진료와 입원, 수술은 모두 입국 14일 이후로 연기된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엔 선별 진료소에서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예약 단계에서 환자가 자신의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해외 여행 정보가 팝업창으로 보여진다"며 "원무과는 감염관리실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 진료과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원, 환자와 잦은 실랑이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들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1차, 2차 병원들은 예약만

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환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분야가 정형외과나 치과, 신경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예약없이 병원을 찾은 감기증상 환자를 돌려보내느라 실랑이도 종종 벌어진다. 중국인 근로자들의 밀집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최근 잦은 충돌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로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는 "기침이 심하고 중국 방문 이력도 있는 중국인 환자에 선별 진료소를 먼저 찾을 것을 권하다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 아픈 환자를 치료없이 돌려보는 일도 도의상 쉽지 않은데,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 확진자 발생 이후 폐쇄조치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코로나 공포’에 병원도 안간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급증

감기약 등 상비약 판매 38.2% 증가
마스크 1746%, 손세정제 27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여파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늘고 있다.

가벼운 증세인 경우, 다른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병원 대신 상비약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은 전년 설 연휴 이후 같은 기간(2019년 2월 7일~16일)과 비교해 38.2%나 증가했다.

특히 감기약(40.4%)과 해열제(32.9%) 매출이 크게 늘었고 소화제(15%)와 파스(18%)도 잘 나갔다. 마스크



서울의 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연합뉴스

크는 무려 1746%, 손 세정제는 277.5%, 가글과 같은 구강용품은 164.3% 더 판매됐다.

GS25에서도 같은 기간 안전상비의

약품 14종의 판매량이 전년과 비교해 27.2% 늘었고 감기약류 매출은 24.2% 증가했다.

CU 관계자는 "신종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세한 감기 증상에는 병원을 가기보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약국이 문을 닫는 저녁 8시 이후나 주말 매출이 전체의 40~5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의 면역력 증진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량도 덩달아 늘고 있다. 옥션은 같은 기간 프로폴리스 판매량이 전년 대비 94%, 비타민은 12% 늘었다고 밝혔다. G마켓에서도 프로폴리스는 184%, 비타민은 19%, 홍삼은 42%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INNOBIZ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혁신의 새로운 성장

제19차 정기총회 변경 안내

이노비즈협회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개최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① 일 시 : 2020. 2. 19(수) 15:00

② 장 소 : 이노비즈협회 B1층 대회의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2020년 2월 10일

☎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화 031-628-9600)